

‘광주 3대 문화수장’ ○○형 인를 필요하다



현재 광주 문화계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공석인 3대 문화 기관의 수장 선임 결과에 따라 광주 문화계는 ‘진보’를 선택 할 수도, ‘퇴보’ 할 수도 있다. 광주가 말뿐인 예향이 아닌 실 질적인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역주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

는 인물에만 머물지 말고 시선을 돌려 국내·외 인사들도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잇따라 열리는 국제행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지역 정치나 사회, 문화, 학연 등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문화 기관의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비엔날레재단 국제감각 탁월한 ‘스타’

시립미술관 기획력도 갖춘 ‘문화통’

광주문화재단 경영능력 겸비한 ‘CEO’

亞문화전당·국제행사 등 시너지 위해 정치·학연 등서 자유로운 인물 뽑아야

◇광주비엔날레재단=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광주시장이 겸임하고 대표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명예이사장은 광주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사와의 상근, 비상근 여부에 관한 부분도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근 이사장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역할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의 연봉은 9000만원 중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립미술관=광주시는 이번 주 내에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 10월 초에 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이후에는 1차 서류전형과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면접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연봉은 5000만원에서부터 7000만원 초반 수준이다.

◇광주문화재단=현재 전국 대부분 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밟고 있어, 광주문화재단은 어느 때보다도 능력있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원로 미술인과 지역 인사들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감각과 인적 네트워크를 검증하지 않고, 단지 지역인사라는 이유로 대표를 맡길 경우 광주비엔날레 자체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1992년 8월 개관 이후 행정직 5급 공무원이 관장을 맡았던 1·2대를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강연국, 최영훈, 오건택, 이태길, 박지택, 황영성씨 등 사실상 지역 ‘작가’들이 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후임 관장으로 윤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역 미술 작가 한 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계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물이 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광주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이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지역 미술계 사이의 간극을 포용하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현대미술계의 ‘국제통’을 모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운영형 시장이 최근 밝힌 것처럼 당분간 임시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재단 전반을 살핀 뒤 대표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최근 2014광주비엔날레가 끝나는 오는 11월9일 이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특히 무엇보다 재단기금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기금을 확보하는 경영능력을 갖춘 CEO형 리더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 문화재단의 기금은 87억여원 수준으로 13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

지역에서는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계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물이 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광주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서류심사, 오는 29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을 윤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면접심사에 앞서 시민과 추천위원을 앞에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10분 이내의 PT를 진행해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모여 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정세균·문화상·박지원·박성식·이석현·원혜영·김성곤·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정치 혼돈 속 ‘배후론’·‘협박용’ 난무

‘박영선 탈당설’ 일파만파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 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온종일 그룹별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탈당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밤 기자와 만나 “(14일 모임을 가진)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저렇게 물러가라고, 아니 아예 당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쫓겨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 20여명은 국회 의원회관에

서 모여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승희 의원은 모임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상당수 참석자는 “탈당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박 원내대표 측으로 저렇게 물러가라고, 아니 아예 당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쫓겨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 열린 중진모임에 참석한 원혜영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할 리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이 단합할 길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서는 당장 박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본인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역시 박 원내

대표의 거취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최원식의 의원은 민집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당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책임을 과도하게 묻다가 당 자체가 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탈당하라는 차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동반 탈당설과 배후설까지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그동안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요 의사결정에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관여했고, 이번에도 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가 동반 탈당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동반 탈당이나 배후설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중도 성향 의원들 적극 행보

세월호법 원내 투쟁·국회 정상화 주장...강경파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당내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던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번 내내 사태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김성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장병안, 황주홍 의원 등은 세월호 특별법 투쟁 과정에서 장외 투쟁보다는 원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당내 강경파에 맞서는 목소리를 보였다.

여기에 박주선, 김동철, 황주홍, 김승남 의원 등은 당내 중도 성향 모임인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에 참여, 국회 정상화와 당내 현안에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친노 주류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강경파에 밀려서는 안 되며 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의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다선 의원들은 당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남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의 변화 요구에 적극 대응,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호남 중도성향 의원들이 결속을 강화한다면 차기 당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반해, 7·30 재보선을 통해 입성한 초선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아직까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김영록 수석부대표 등은 당직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정훈, 이계호 의원 등도 새내기 의원으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aTour (하나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London Stock Exchange listing, and a wedding & honeymoon fai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details.